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 기독교청소년을 중심으로 —

전 요 섭 교수
(Ph.D., Ed.D., 성결대학교)

배 은 주
(Ph.D., cand., 성결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개인 신앙배경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신앙배경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간에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one-way ANOVA와 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개인신앙배경 즉, 교회출석 기간, 구원의 확신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신앙배경 즉, 가족의 신앙 기간, 아버지의 직분, 부모님과의 신앙 동일성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인식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의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의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어머니 인식에서도 하나님의 이미지의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의미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교회현장과 상담현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있어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중심단어 : 부모인식, 하나님 이미지, 기독교신앙, 청소년상담, 기독교상담

I. 여는 글

가족생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 자매관계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 통계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벅찰 정도이다.¹⁾ 높아가는 이혼률, 남아선호사상, 저출산률, 고령화 현상, 기러기 아빠 등은 더 이상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생활통계 연보”에서 2003년도에 초, 중, 고등학생 6,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 또 하루에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30분 미만이 25.3%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미만이 20.8%였으며, 하루평균 63분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고민을 의논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가 72.1%로 가장 높았으며, 혼자 해결이 55.5%, 어머니 26.7%, 아버지 7.4%로 나타났다.²⁾ 이는 고민이 있다하더라도 가족이나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보다 또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자녀와 부모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준다.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가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주제이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특성과 행동성향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일반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한 주제어이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교회에 있어서도 가정의 존재이유는 명확하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종족이 번성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고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기 원하신다.³⁾ 모든 인간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대인관계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좌절과 상실, 실패 등의 부정적 경험도 하게 된다. 이런 관계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인간은 자신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에 관해 정신분석학에서는 5세 이전의 유아기의 종교적 사고에 집중하였고, 인식발달이론의 Jean Piaget은 취학 전과 학령기 아동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연구는 유아기와 취학 전, 아동후기 등으로 인간의 발달단계를 거쳐 가면서 변화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판단하려는 존재라기보다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한 감각적 경험 이상의 존재로서 자신과 직접적이고 내적으로 활동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⁵⁾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개인의 신앙배경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가족의 신앙배경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나타난 영향, 그리고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상담현장에서 청소년상담과 부모교육 및 목회에 있어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깊은 연관성을 맺게 되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애정, 관용, 그리고 사랑 등을 얻고 인간이 이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⁶⁾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 존재하신다면, 인간도 관계속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정체성은 인간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안에서 발달하게 된다.⁷⁾ 인간이 태어나서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관계는 양육자와의 관계이다. 그 양육자가 친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부모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모체와 함께 있을 때부터 관계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험하는 초기대상과의 관계는 한 인간의 전체 삶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인식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 신앙배경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가족 신앙배경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간에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하나님 이미지의 이해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나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성경적, 신학적인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성경적, 신학적 접근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이해, 대상관계이론의 이해, Carl Gustav Jung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적, 신학적 접근

① 구약적 이해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 이것은 곧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성경적 인간론의 이해이다. 이미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급된 단어는 'Imago Dei'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⁸⁾ 이 같은 하나님 이미지는 존재적 관점, 관계적 관점, 기능적 관점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⁹⁾ 존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정의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인식은 강조되고 발달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관계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⁰⁾ 즉,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관계들이 기준이 되어 그것들의 연합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로 관계가 곧 이미지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미지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입장에 대해 해석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청지기라는 기능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이것

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왕이 백성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본 논문이 진행하려고 하는 관점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관계적 관점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의 문제는 자신이 인간관계속에서 경험한 상처, 좌절, 상실 등의 경험인데, 이러한 경험들이 내담자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② 신약적 이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는데, 아버지를 의미하는 헬라어 ‘πατήρ(파테르)’는 신약안에서 총 417회 사용되었다. 그 중에 151회는 영어 소문자로 father를 써서 일반적인 아버지를 뜻하고, 265회는 영어 대문자로 Father를 써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1회는 parent를 써서 부모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한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 이미지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Jay E. Adams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성호는 따뜻한 관심과 돌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존재하며,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를 향해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과정으로 보았다.¹²⁾ 또한 Lawrence J. Crabb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지식과 거룩함과 의에서 장성해 간다(엡 4:22-25, 골 3:9-10).”는 뜻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³⁾ 이처럼 신약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는 인간

이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이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신앙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의미있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2) 심리학적 접근

① 정신분석학과 하나님 이미지

Sigmund Freud는 '대상표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종교와 하나님의 표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Freud는 신경증과 종교 사이의 연관을 연구하면서 종교를 집단적 유아 신경증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신경증으로 표현되는 조상숭배, 주물숭배, 결벽주의 등을 종교로 이해하기도 한다. 정신분석에서 조상숭배는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신경증적인 고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환자가 이러한 고착증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치료된다.¹⁴⁾ 결국 Freud에게 있어서 종교는 극복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함으로 인해 어린 시절의 갈등이 신경증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지배자로서 원시시대에 부족을 이끌던 지도자로 인식되고 이러한 아버지를 향해 아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함께 양가감정(ambivalence)을 갖게 된다.¹⁵⁾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관계를 맺었던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적 이미지들을 형성한다. Freud는 이러한 관계의 예로 독일의 문호 Johann Wolfgang Von Goethe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이론을 전개한다. Goethe는 완고한 아버지를 경멸했으나 자신의 노년의 모습이 아버지의 성격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곧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동일화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욕구가 아이의 마음속에 배제되고, 과잉보상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실현된다고 본다.¹⁶⁾ 물론 Freud는 종교에 대해 반종교적 감정을 표명하면서 '대상표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Freud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즉,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고 유대인이었던 아버지에게 갖었던 양가감정을 분석하면서 정신분석학에서도 부모와 하나님의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대상관계이론과 하나님 이미지

대상관계이론에서는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초기 대상과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부모와의 관계경험은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본배경이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경험과 하나님 이미지 사이에는 반대적인 개념이 성립되기도 한다. 즉, 실제부모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보호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¹⁷⁾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가족, 사회 등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성과 의미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이전보다 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개념을 내면화하고 그 개념들을 다른 욕구들과 연결시켜 나가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부모와 하나님 이미지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특히 Ana Maria Rizzuto는 Freud의 무신론을 비판하면서 부모인 초기대상과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Rizzuto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관계의 발달과 함께 형성된다고 보고 아동이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 경험하는 종교적 경험들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¹⁸⁾ 결국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차적인 원인을 부모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③ Carl G. Jung과 하나님 이미지

Jung은 신앙과 종교적 실천이 심리적 성숙과정을 발달시키며, 하나님 원형과 자기 자신의 원형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⁹⁾ 그는 하나님을 원형적 이미지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사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사탄의 사위일체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Jung에게 있어서 예수는 석가모니와 마호메드 등과 같이 자아실현의 완성자들 중의 하나로 표현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기원형이 실현된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Jung은 Freud가 부정적 체험의 투사로 개인의 심리적 작용을 주장한 것과 달리 그는 모성적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²⁰⁾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종교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면서 어머니의 상징적 상이 종교적 행동의 상징적 구성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라고 하였다. Jung의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한계점을 제시한다면, Jung은 하나님은 인간이 투사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원형과 동일시하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신학과 심리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이다. 또한 Jung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원형의 투사로 말함으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통합한 양가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Jung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선을 가진 정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진리이시며,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Jung의 이론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2) 부모인식

부모-자녀 관계는 부부에게 자녀가 생김으로 형성되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출생 직후 또는 모태속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의 인생초기경험은 자녀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관계가 평생 지속된다. 더욱이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기간이 더 지속되기도 한다. 셋째,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특히 어머니와 관계에서 더 깊다. 넷째,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자녀의 사회화, 진로,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²¹⁾ Gary R. Collins는 자녀에게 영향력 있는 상담자는 효과적인 부모이며, 부모는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으로 인해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²²⁾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져서 평생 지속되는 관계로써 자녀는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에 여과없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통해 사회를 접하게 되고 관계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자녀가 인식하게 되는 부모의 영향에 따라 자녀는 사회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3)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하나님 이미지는 각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개인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개인 안에 형성된 이미지는 개인의 삶의 정황과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성을 나타낸다. 특히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모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Collins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에 또다시 하위영역이 나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편재, 전지, 전능, 불변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룩, 사랑, 또한 진리로 나뉘어진다.²³⁾ Collins가 설명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가정의 창조는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완성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삼위일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²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더욱이 기독교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녀양육태도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성경에 기초한 좋은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육해야 한다.²⁵⁾ 성경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기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인천, 안양, 안산 등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소년 173명이다. 2005년 10월 10일부터 21일

까지 각 학교 선생님과 각 교회 담당자를 통해 배부하고 설문을 회수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부를 회수하였으며, 자료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27부를 제외하고 1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11.0을 통해 통계처리하였다. 개인신앙배경과 가족신앙배경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LSD)을 실시했다. 그리고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사용된 유의도 수준은 $p < .05$ 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

문항	구분	사례	비율(%)
성별	남자	68	39.3
	여자	105	60.7
학력	중학교	62	35.8
	고등학교	111	64.2
부모유형	이혼	7	4.0
	사별	1	0.6
	별거	3	1.7
	편부	0	0
	편모	0	0
	조부모	2	1.2
	친척	0	0
	계부	0	0
	계모	1	0.6
	친부모	157	90.8
기타	2	1.2	
전체		173	100

2) 연구도구

(1) 하나님 이미지 검사 (God Image Assesment)

청소년이 인식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이 검사지는 Richard T. Lawrence가 1997년도에 72문항으로 만든 것을 김난예가 6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²⁶⁾ 소속감(belonging), 승인감(goodness), 통제감

(feeling of control)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진다. 소속감은 현존과 도전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지는데, 현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가?”이며, 도전은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가?”이다. 승인감은 용납과 긍휼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지는데, 용납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충분히 착한 사람인가”이며, 긍휼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분인가”이다. 통제감은 영향력과 섭리로 나뉘어 지며, 영향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가?”이며, 섭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제하실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본 검사는 총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 한 결과 $=.94$ 가 나왔다. 본 검사지의 문항 형식은 각 하위요인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점수화되며, 허위문항은 1, 2, 3, 4, 9, 12, 13, 15, 21, 27, 33, 34, 37, 39, 40, 42, 43, 45, 50, 51, 57, 59, 60번으로 역산채점 하였다.

〈표 2〉 하나님 이미지 검사의 문항 구성

하위요인	구 성	문 항	문항수
소속감	현 존	1, 7, 13, 19, 25, 31, 37, 43, 49, 55	10
	도 전	2, 8, 14, 20, 26, 32, 38, 44, 50, 56	10
승인감	용 납	3, 9, 15, 21, 27, 33, 39, 45, 51, 57	10
	긍 흘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10
통제감	영향력	5, 11, 17, 23, 29, 35, 41, 47, 53, 59	10
	섭 리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0

(2) 부모인식 검사 (Attitude toward Father and Mother Scales)

본 검사지는 Walter W. Hudson이 1992년도에 제작하여 표준화한 검사지로 청소년자녀가 인식한 부모태도에 대한 검사지이다.²⁷⁾ Hudson은 청소년 1072명을 대상으로 검사지를 제작하여 test-retest의 신뢰도 검사를 통해 아버지 인식은 $=.96$, 어머니 인식은 $=.95$ 의 신뢰도 점수를 얻었다. 본 연구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아버지 인식은 $=.94$, 어머니 인식은 $=.93$ 이 나왔다. 각각 25문항으로 구성된 본 검사지는 아버지

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 내용이 동일하다. 또 허위문항은 2, 3, 8, 12, 14, 15, 16, 21, 24번으로 역산채점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개인신앙배경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① 교회출석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차이

교회출석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교회 출석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부모인식	5년 전	19	114.6316	39.87928
	10년 전	26	104.9615	32.81156
	15년 전	8	109.0000	30.44433
	모태신앙	90	99.2000	27.60077
	기타	30	113.1000	29.48214
	합계	173	104.6243	30.68014
하나님 이미지	5년 전	19	202.6842	38.66387
	10년 전	26	207.8846	34.42247
	15년 전	8	210.3750	14.79322
	모태신앙	90	221.1889	33.43849
	기타	30	203.0667	27.52796
	합계	173	213.5145	33.34625

<표 4> 교회출석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분석

		SS	df	MS	F	LSD
부모인식	집단간	6862.095	4	1715.524	1.859	
	집단내	155036.5	168	922.836		
	합계	161898.6	172			
하나님 이미지	집단간	11706.924	4	2926.731	2.738*	㉠<㉡<㉢
	집단내	179552.3	168	1068.764		
	합계	191259.2	172			

㉠ 5년 전 ㉡ 모태신앙 ㉢ 기타, *p<.05

<표 3>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모태신앙' 이라고 응답한 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15년' 이라고 응답한 수가 34명으로 많았다. 이처럼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는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부모인식에서 있어서는 교회출석 기간과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구원의 확신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차이

구원의 확신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5> 구원의 확신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부모인식	없다	2	115.0000	12.72792
	없지만 받고 싶다	6	100.1667	31.17317
	모르겠다	28	108.4286	33.70617
	있는 것 같다	66	108.6970	31.43979
	확실히 있다	71	99.4225	28.83384
	합계	173	104.6243	30.68014
하나님 이미지	없다	2	167.0000	11.31371
	없지만 받고 싶다	6	203.6667	13.07925
	모르겠다	28	183.9286	30.58192
	있는 것 같다	66	204.0455	21.10518
	확실히 있다	71	236.1268	30.33900
	합계	173	213.5145	33.34625

<표 6> 구원의 확신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분석

		SS	df	MS	F	LSD
부모인식	집단간	3755.624	4	938.906	.997	
	집단내	158143.0	168	941.327		
	합계	161898.6	172			
하나님 이미지	집단간	71639.301	4	17909.825	25.153***	a(e) c(d,e) d(c,e) e(a,c,d,b) b(e)
	집단내	119619.9	168	712.023		
	합계	191259.2	172			

㉑없다 ㉒없지만 받고 싶다 ㉓모르겠다 ㉔있는 것 같다 ㉕확실히 있다, ***p<.001

<표 5>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가 137명으로 나타났으며, <표 6>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원에 대해 확실하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족신앙배경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① 가족의 신앙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차이

가족신앙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표 7>과 <표 8>과 같다.

<표 7> 가족 신앙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부모인식	본인부터	25	106.3200	34.10489
	부모님부터	46	99.3043	30.00435
	조부모님부터	51	98.1961	27.20810
	잘 모르겠다	40	117.3000	28.31888
	기타	11	106.7273	39.01818
	합계	173	104.6243	30.68014
하나님 이미지	본인부터	25	214.2400	36.10896
	부모님부터	46	226.0217	33.77210
	조부모님부터	51	216.5882	28.49153
	잘 모르겠다	40	197.2000	28.52278
	기타	11	204.6364	41.37698
	합계	173	213.5145	33.34625

<표 8> 가족 신앙 기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분석

		SS	df	MS	F	LSD
부모인식	집단간	9956.778	4	2489.194	2.752*	㉞<㉠, ㉡<㉠
	집단내	151941.8	168	904.415		
	합계	161898.6	172			
하나님 이미지	집단간	19204.377	4	4801.094	4.688**	㉠<㉡ ㉞<㉠, ㉡ ㉢<㉠
	집단내	172054.8	168	1024.136		
	합계	191259.2	172			

㉠본인부터 ㉡부모님부터 ㉢조부모님부터 ㉣잘 모르겠다 기타, *p<.05, **p<.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부터 믿은 사례와 부모님부터 믿은 사례에 부모인식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 이미지에 있어서도 본인부터 믿은 사례와 부모님 이상 믿은 사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신앙의 연조가 부모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에 나타난 결과가 이것을 증명한다. 가족의 신앙 기간이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가설을 입증한 것이다.

② 어머니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차이

어머니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9> 어머니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부모인식	성도	12	118.8333	26.94382
	집사	90	98.9333	28.63164
	권사	5	123.8000	36.13447
	전도사	3	100.000	17.77639
	없다	63	108.7460	32.82110
	합계	173	104.6243	30.68014
하나님 이미지	성도	12	207.9167	21.23658
	집사	90	217.6111	33.99031
	권사	5	232.8000	42.71651
	전도사	3	194.6667	6.42910
	없다	63	208.0952	33.46385
	합계	173	213.5145	33.34625

<표 10> 어머니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분석

		SS	df	MS	F	LSD
부모인식	집단간	8310.575	4	2077.644	2.273	
	집단내	153588.0	168	914.214		
	합계	161898.6	172			
하나님 이미지	집단간	6662.013	4	1665.503	1.516	
	집단내	184597.2	168	1098.793		
	합계	191259.2	172			

<표 9>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분이 '집사'인 경우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다'가 6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0>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인식에서는 영가설이 성립될 확률이 $p<.064$ 로, 하나님 이미지에서는 $p<.200$ 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직분이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가 갖게 되는 부모인식과 하나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선 것이다.

③ 아버지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차이

아버지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한 결과가 <표 11>과 <표 12>와 같다.

<표 11> 아버지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부모인식	성도	20	111.1000	26.33369
	집사	61	96.3279	29.25903
	권사	2	145.5000	44.54773
	장로	8	104.0000	27.09771
	전도사	5	93.4000	25.03597
	없다	77	109.2468	31.84426
	합계	173	104.6243	30.68014
하나님 이미지	성도	20	207.0500	28.71727
	집사	61	218.5738	34.56273
	권사	2	188.5000	34.64823
	장로	8	239.1250	28.94545
	전도사	4	247.0000	42.49706
	없다	77	208.0000	31.16510
	합계	173	213.5145	33.34625

<표 12> 아버지 직분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분석

		SS	df	MS	F	LSD
부모인식	집단간	10657.324	5	2131.465	2.354*	㉞(㉟)
	집단내	151241.254	167	905.636		㉟(㉠)
	합계	161898.578	172			㉠(㉡)
하나님 이미지	집단간	12872.771	5	2574.554	2.410*	㉡, ㉢(㉣)
	집단내	178386.443	167	1068.182		
	합계	191259.214	172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없다, * $p<.05$

<표 11>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분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직분에 따라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인식에서는 영가설이 성립될 확률이 $p<.035$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고, 하나님 이미지에서는 영가설이 성립될 확률이 $p<.013$ 으로 영가설은 기각되고 가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과 자녀가 인식한 하나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영향력과는 달리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에게 의미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④ 부모님 신앙 동일성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 차이

부모님 신앙의 동일성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한 결과는 <표 13>과 <표 14>와 같다.

<표 13> 부모님 신앙동일성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부모인식	두 분 다 다르다	22	106.2273	36.55124
	두 분 다 같다	105	101.7905	29.49436
	아버지만 같다	3	146.3333	16.86219
	어머니만 같다	23	102.6087	28.62253
	기타	20	113.8000	29.80922
	합계	173	104.6243	30.68014
하나님 이미지	두 분 다 다르다	22	219.7727	33.36513
	두 분 다 같다	105	214.6000	33.32953
	아버지만 같다	3	201.0000	21.93171
	어머니만 같다	23	221.4783	27.21776
	기타	20	193.6500	35.75248
	합계	173	213.5145	33.34625

〈표 14〉 부모님 신앙동일성에 따른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차이 분석

		SS	df	MS	F	LSD
부모인식	집단간	7895.979	4	1973.995	2.153	
	집단내	154002.6	168	916.682		
	합계	161898.6	172			
하나님 이미지	집단간	10805.861	4	2701.465	2.515*	a, b, c, d, e
	집단내	180453.4	168	1074.127		
	합계	191259.2	172			

a)두 분 다 다르다 b)두 분 다 같다 c)어머니만 같다 d)기타, *p<.05

〈표 13〉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 이미지에 있어서 부모님과 신앙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에 따라 평균점수와 표준편차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4〉에 의하면 부모인식보다 하나님 이미지에 있어서 부모님 신앙의 동일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과 신앙에 의해 자녀가 갖는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부분이다.

(3)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① 아버지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관관계

아버지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상관계수의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표 16〉과 같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하위요인인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의 세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6〉에서 각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를 통해 도전, 용납, 긍휼, 섭리의 영역에서 아버지 인식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아버지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관관계

	아버지인식	소속감	승인감
소속감	-.194*		
승인감	-.272**	.625**	
통제감	-.190*	.898**	.572**

*p<.05, **p<.01

〈표 16〉 아버지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아버지인식	현존	도전	용납	공홀	영향력
현존	-.149					
도전	-.216**	.736**				
용납	-.206**	.419**	.362**			
공홀	-.248**	.479**	.705**	.388**		
영향력	-.125	.814**	.770**	.297**	.583**	
섭리	-.238**	.752**	.807**	.316**	.621**	.762**

**p<.01

② 어머니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관관계

어머니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상관계수는 <표 17>과 <표 18>과 같다. <표 17>를 통해 보면,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존, 도전, 용납, 공홀, 영향력, 섭리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어머니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관관계

	어머니인식	소속감	승인감
소속감	-.246**		
승인감	-.337**	.625**	
통제감	-.277*	.898**	.572**

**p<.01

〈표 18〉 어머니 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어머니인식	현존	도전	용납	공홀	영향력
현존	-.215**					
도전	-.281**	.736**				
용납	-.277**	.419**	.362**			
공홀	-.285**	.479**	.705**	.388**		
영향력	-.229**	.814**	.770**	.297**	.583**	
섭리	-.296**	.752**	.807**	.316**	.621**	.762**

**p<.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개인의 신앙배경과 가정의 신앙배경이 청소년이 부모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의미있는 요소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개인의 신앙배경에 있어서는 교회출석 기간,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쳤고, 가족의 신앙배경에 있어서는 가족의 신앙기간, 아버지의 직분, 부모님과 신앙의 동일성이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의미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직분과는 달리 아버지의 직분은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의 두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가정과 자녀의 신앙형성과 부모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가정의 신앙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청소년기 자녀들의 발달에 의미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기독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교별로 부모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표본에 있어서 그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짓지 않고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미지 형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V. 닫는 글

인간은 태어나기 전, 모체에서부터 관계를 맺고 삶을 살게 된다. 모든 생존하는 것에는 관계가 성립하지만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의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속에도 들어가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하게 된다. 무엇에든지 첫 경험의 대상, 시기 등은 그 후에 진행될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험들에 본보기 또는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관계의 경험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는 사회성 등 모든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양육자인 부모를 통해 인식하게 된 조건이 하나님의 이미

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의미있는 자료가 된다. 청소년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상이 정립되도록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훈련된 전문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가정에서 부모는 성경적인 자녀양육태도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1. 김순홍 외. 「청소년 생활 통계 연보」. 광주: 광주사회조사연구소. 2003.
2. 김유숙. 「가족평가 핸드북」. 서울: 학지사. 2005.
3. Adams, Jay E.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류근상, 원준자 역. 「기독교상담신학」. 서울: 크리스찬. 2002.
4. Bridger, Francis & Atkinson, David. *Counseling in Context*. 이정기 역. 「상담신학」. 서울: 예영미디어. 2002.
5. Clair, Michael St.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6. Collins, Gary R.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7. ———.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혜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2003.
8. Corcoran, Kevin & Fischer, Joel.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New York: Free. 2000.
9. Crabb, Lawrence. *Understanding Who You are*. 한재희, 이혁의 역. 「그

- 리스도인을 위한 인간이해]. 서울: 이레서원. 2002.
10. ———.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1999.
 11.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8.
 12. Freud, Sigmund. *Gesammelte Werke 16*.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서울: 열린책들. 1997.
 13. Fromm, Erich. *Psycho Analysis and Religion*. 이재기 역. 「종교와 정신분석」. 서울: 두영. 1995.
 14. Jung, Carl G. *Psychology and Religion*. 이은봉 역. 「심리학과 종교」. 서울: 창. 1996.
 15. ———. *Archetyp und Unbewubtes*. 한국융연구원 역.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 2003.
 16. Lawrence, Richard T.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97.
 17. Litchfield, Bruce and Litchfield, Nellie. *Christian Counseling &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 「기독교상담과 가족치료」. Vol.3 서울: 예수전도단. 2002.
 18. Macaulay, Ranald & Barrs, Jerram. *Being Human: The Nature of Spiritual Experience*. 홍치모 역.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IVP. 1995.
 19. Meier, Paul D. & Minirth, Frank B.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2003.
 20. Rizzuto, Ana-Maria.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9.
 21. Schwinge, Gerhard. 조병하 역. 「신학 전문 용어 및 외래어 사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22. Stanley, Charles F. *When the Enemy Strikes*. 차명호 역. 「마음 전쟁」. 서울: 미션월드. 2005.
 23. Ulanov, Ann & Ulanov, Barry. *Religion & Unconscious*. 이재훈 역. 「종교와 무의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6.
 24. Wynn, John Charles. *Family Therapy in Pastoral Ministry*. 문희경 역. 「가족치료와 목회사역」. 서울: 솔로몬. 1998.

[후주]

- 1) John Charles Wynn, *Family Therapy in Pastoral Ministry*, 문희경 역, 「가족치료와 목회사역」(서울: 솔로몬, 1998), 12.
- 2) 김순홍 외, 「청소년 생활 통계 연보」(광주: 광주사회조사연구소, 2003), 21.
- 3) Bruce Litchfield and Nellie Litchfield, *Christian Counseling &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 「기독교상담과 가족치료」Vol.3 (서울: 예수전도단, 2002), 33.
- 4)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2003), 313.
- 5) Meier, Minirth, 316.
- 6) Lawrence Crabb, *Understanding Who You are*, 한재희, 이혁의 역,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간이해」(서울: 이레서원, 2002), 9.
- 7) Francis Bridger & David Atkinson, *Counseling in Context*, 이정기 역, 「상담신학」(서울: 예영미디어, 2002), 199.
- 8) Gerhard Schwinge, 조병하 역, 「신학 전문 용어 및 외래어 사전」(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147.
- 9)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8), 498.
- 10) Erickson, 502.
- 11) Erickson, 510.
- 12)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류근상, 원준자 역, 「기독교 상담신학」(서울: 크리스찬, 2002), 81.
- 13) Lawrence Crabb,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이해와 상담」(서울: 두란노, 1999), 130-2.
- 14) Erich Fromm, *Psycho Analysis and Religion*, 이재기 역, 「종교와 정신분석」(서울: 두영, 1995), 68-9.
- 15) Ann Ulanov & Barry Ulanov, *Religion & Unconscious*, 이재훈 역, 「종교와 무의식」(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6), 125.
- 16)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 16*,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서울: 열린책들, 1997), 171.
- 17) Michael St. Clair,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55.
- 18)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9), 90-1.
- 19) Carl G. Jung, *Psychology and Religion*, 이은봉 역, 「심리학과 종교」(서울: 창, 1996), 20-3.
- 20) Carl G. Jung, *Archetyp und Unbewubtes*, 한국융연구원 역, 「원형과 무의식」(서울: 솔, 2003), 201-5.
- 21) 김유숙 외, 「가족평가 핸드북」(서울: 학지사, 2005), 165.
- 22)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혜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서울: 두란노, 2003), 302.

- 23)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15.
- 24) Ranald Macaulay & Jerram Barrs, *Being Human: The Nature of Spiritual Experience*, 홍치모 역, 「인간: 하나님의 형상」(서울: IVP, 1995), 207.
- 25) Charles F. Stanley, *When the Enemy Strikes*, 차명호 역, 「마음 전쟁」(서울: 미션 월드, 2005), 287-8.
- 26) Richard T. Lawrence,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97): 214-26.
- 27) Kevin Corcoran, Joel Fischer,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New York: Free, 2000), 495-8.

【 Abstract 】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 in focus of the Christian Adolescence -

Joseph Jeon
(Ph.D., Ed.D., Sungkyul University)

Eun-Joo Bae
(Ph. D. cand., 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a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according to the Christian environment in individual and family. This research classified two kinds of religious affiliation: the period of church attendance, the assurance of salvation in individual and the Christian environment in the family.

This researcher established the following three hypothesis.

1. There will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according to the Christian environment in individual.
2. There will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according to the Christian environment in family.
3. There will be a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This researcher observed 173 male and female middle · high school student. The collected sample statistics were taken by applying the analysis of variance through a statistical package of the social science program 11.0(SPSS 11.0). This researcher used the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for hypothesis testing.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according to the Christian environment in individual. Especially, assurance of salvation and the period of church attendance are very beneficial influences to God Imag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according to the Christian environment in family. Especially, Christian faith of father are very beneficial influences to God Image.

Thir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Accordingly, a church ought to guide and counsel a Christian in order to get firmly parents attitude through Christian faith.

Kye words: God Image, Parents attitude, Christian adolescence, Christian faith, Christian counseling